



김세훈 SBS 인프라관리팀 사원



배민선 SBS 라디오기술팀 사원

INTERVIEW

SBS 방송기술직 신입사원

작년 SBS는 4명의 방송기술직 신입사원을 채용했다. 미디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방송기술이 가진, 나아가 방송이 가진 비전을 택한 4인을 만났다. 바늘구멍보다도 작다는 신입사원 공채에서 당당히 ‘합격’을 거머쥔 주인공이 누구일까? 그런 SBS의 새로운 얼굴들을 만나 인터뷰를 통해 ‘합격’의 소식을 듣기 위한 노력과 방송기술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장차 SBS의 미래를 책임질 4명의 방송기술직 신입사원을 소개한다. 정리.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황돈희 SBS 편집기술팀 사원



최문규 SBS 인프라관리팀 사원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민선 안녕하세요. SBS 라디오기술팀 신입사원 배민선입니다. 방송국 입사 준비를 하며 ‘방송과기술’에서 다른 선배님들의 인터뷰를 참고하던 게 었그제 같은데, 이렇게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저는 작년 10월 1일자로 SBS에 입사하여 3개월간의 인턴 생활을 거친 후, 올해 1월부터 라디오기술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배님들을 따라다니며 라디오기술팀의 업무를 하나씩 익혀나가는 중입니다. 라디오 제작부터 송출, 중계, 정비, 시스템 관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배우며 103.5MHz SBS 러브FM의 훌륭한 오디오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훈 안녕하세요? SBS 인프라관리팀 방송인프라 파트에서 근무하는 김세훈입니다. 저는 워크스테이션, 모니터, 스위치 등의 컴퓨터 장비에서부터 무선 마이크, 탈리, VCR 등의 방송장비를 정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문규 저는 SBS 인프라관리팀 기반인프라 파트에서 근무하는 최문규입니다. 저희 파트는 보안, 네트워크 공사 등을 담당하고 있어요. 저는 주로 중단 장비(NLE)를 담당하며 트러블슈팅을 수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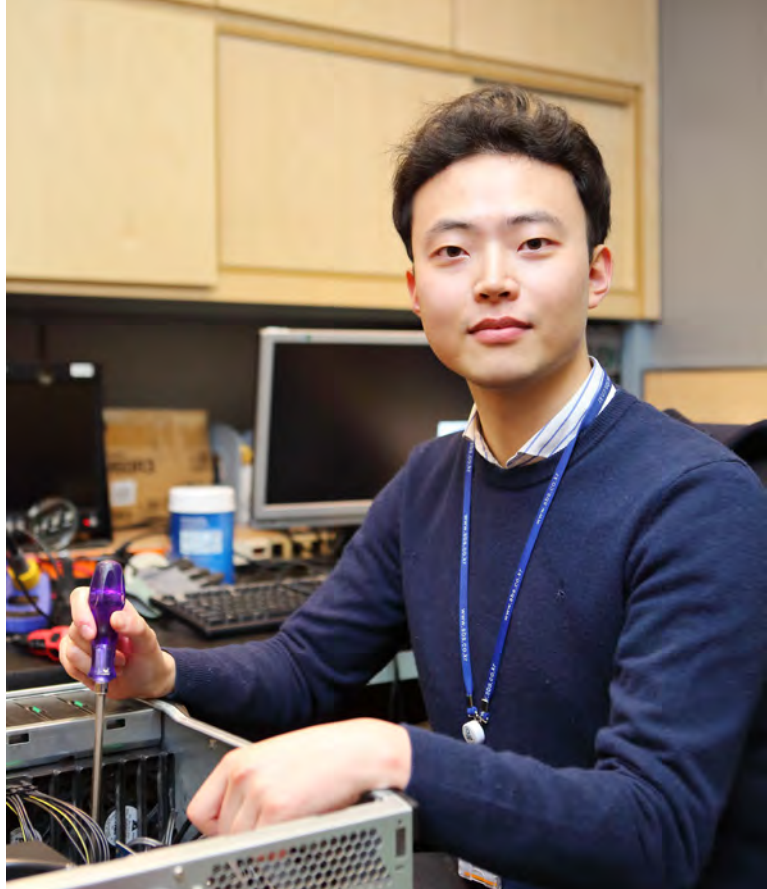
돈희 SBS 편집기술팀 종합편집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돈희입니다. 저는 주로 연출, 오디오감독, 자막감독과 협력하여 방송될 콘텐츠를 제작하고 QC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궁금하네요.

세훈 대학교에서는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재미있고 보람 있습니다.



합격의 상징인 4명의 SBS 사원증



김세훈 SBS 인프라관리팀 사원

민선 저는 대학교에서 미디어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미디어 공학’하면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존 방송 시스템부터 최근의 IT 기술까지 폭넓은 분야를 배웁니다. 미디어가 제작되어 디지털로 처리되는 과정,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기술을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전자회로공학, 신호및시스템, 방송통신이론, 영상공학, 음향공학, 데이터통신,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문규 전자전기공학부를 전공했습니다. 4학년 때, 친구들은 대부분 반도체와 관련된 과목을 수강했지만 저는 네트워크와 통신 관련 과목을 집중적으로 수강했습니다.

돈희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방송기술직에서는 이러한 전공 지식을 사용할 기회가 없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파일기반 제작시스템으로 인해 IT 기반 지식이 의외로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은?

세훈 전 직장에서 정말 간절히 이직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특히 SBS는 2년 전에 최종탈락했던 곳이라 저를 받아주신다는 점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회사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재미있고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민선 취준생 신분으로 학교 실험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SBS 인사팀으로부터 합격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면접을 본 후 당연히 떨어질 거로 생각해서 다른 기업들의 자소서를 쓰고 있었죠.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그게 합격 전화였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고 그다음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쁘면서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합격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기쁩니다.

문규 저는 이전 회사에서 교육을 받던 중에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순간 믿기지 않아서 여러 번 결과를 확인했고 한 동안 얼떨떨했어요. SBS는 소수의 인원을 뽑아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매우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뽑아주신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웃음)

돈희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니다. 다음으로는 전산 오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이번 기수에는 4명이 합격하였는데, 합격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많어도 2명 정도 합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같이 면접을 봤던 사람들과 만든 카톡방에서도 한 명, 두 명 합격 소식이 올라오며 내심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며 들어온 회사라 그런지, 애사심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합격 후 인턴 생활을 거쳐 현재까지 업무를 하면서 느낌은 어떠한지요?

세훈 방송기술의 범위가 정말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집기술에서부터 카메라, VCR 등의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방송장비 뿐 아니라 서버, 네트워크 등 IT 기술까지도 방송기술에 포함되므로 많은 것을 알아야 함을 깨달았어요. 저는 소개했듯이 나름 많은 장비들을 고치고 있고, 다른 선배님들은 더 많은 장비들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다 익힐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이지만, 그래도 제가 흥미 있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되기보단 기대가 많이 됩니다.

민선 방송국에 입사하기 전에 ‘라디오기술팀’ 하면 단지 콘솔 앞에 앉아 믹싱을 하는 오디오 엔지니어만을 떠올렸지요. 하지만 입사를 하고 보니 라디오기술팀이 하는 업무가 무척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SBS 라디오 기술팀은 TV 각 부서의 업무를 한 팀 내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기술 기획, 인프라 관리, 송출 부분 등을 라디오 기술팀 안에서 모두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도 선

배님들을 따라 전반적인 시스템을 배우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문규 방송기술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방송기술의 영역이 넓기 때문에 대부분 본인 성향에 맞는 업무를 찾아서 수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선배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계시며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요즘은 시간을 잘 활용해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돈희 방송기술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방대하며, 다양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제작 파트와 밀접한 부서인데,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방송사고 하나조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배우면 배울수록 오디오와 비디오가 단순히 감각적인 부분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닌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직무 중 방송기술직에 지원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세훈 어릴 때 어떻게 TV 안테나는 하나인데 여러 채널이 나오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전기에 대한 관심도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자공학을 전공했지요. 그리고 4학년 때 우연히 방송기술이란 분야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송은 마침 공부했었던 통신과 유사한 분야이고, 관심사와도 일치했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황동희 SBS 편집기술팀 사원



배민선 SBS 라디오기술팀 사원

문규 대학 시절,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제게 맞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을 했지요. 그러다가 시작하게 된 교내 방송국 활동에 매력을 느꼈고 그곳에서 제 전공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그래서 방송기술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입사 전 방송 관련 경험이 있는지, 혹은 색다른 이력이 있다면?

세훈 입사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7급 방송통신직으로 1년 8개월간 일했어요. 마침 재난방송 업무를 첫 1년간 맡을 수 있었고, 간접적으로나마 방송에 대해서 익힐 기회가 되었습니다.

문규 교내 방송국 활동을 하면서 1년 동안 PD 역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방송기술직으로 지원한 사람 중에서는 직접 콘텐츠 기획도 해보고 촬영 및 편집을 했던 경험이 조금 특별했던 것 같아요.

입사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요?

민선 SBS 공개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역량면접, 합숙면접, 임원면접 순으로 전형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저는 필기시험을 위해 한 포털사이트의 카페에서 과거에 출제되었던 방송기술직 기출문제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며 방송사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전공공부를 했고, 면접을 위해서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다른 지원자들과 모의 면접을 계속했습니다. 예상 질문 목록을 만들고 그에 따른 답변을 글로 정리한 후에 자기소개서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며 제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을 말로 연습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면접 준비는 영어 공부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도 이를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자신만의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반복하셔야 합니다.

면접에서 기억나는 질문이 있을까요?

돈희 역량면접에서 생각보다 네트워크나 IT 관련 지식을 많이 묻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AI나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이러한 기술을 방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전통의 합숙면접에서 방송 관련 지식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최문규 SBS 인프라관리팀 사원



방송기술직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전할 팁이 있다면?

민선 방송기술직이 기계를 많이 만지는 직업이다 보니 평소에 주변기기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컴퓨터를 직접 조립해본다거나 못 쓰는 기기를 분해해서 동작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자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설명서를 꼭 읽어보고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문희 연관하여, 현재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SBS 하면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세훈 입사 전, SBS라고 하면 젊음과 자유로움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실제로도 그러한 분위기라고 느껴집니다.

민선 저는 '새콤달콤'이 떠오릅니다. 새콤하면서 달콤한, 자꾸 생각나는 매력이 있는 방송사라고 생각합니다. SBS는 오랫동안 사랑받았지만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로 남아있지 않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방송사입니다. 실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선배님들께서 저의 젊은 생각에 대해 많이 물어보십니다. 앞으로도 매력 있는 매체로 남기 위해 신입사원의 패기로 새콤달콤한 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규 방송국을 준비하면서 'SBS는 소수정예'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 같아요. (웃음) 실제로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SBS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배님들을 보며 열심히 배워가는 중입니다.

문희 SBS하면 '젊음, 도전, 따뜻함'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입사 전에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세 가지가 SBS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송기술인이 되고 싶은지 목표를 들어볼까요? 앞으로 자주 볼까요?

세훈 방송기술이 점점 IT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방송기술의 영역이 덜 중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양쪽 모두 잘 아는 방송기술인이 되고 싶습니다.

민선 라디오 엔지니어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SBS 라디오' 하면 제 이름이 떠오르는 방송기술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주어진 업무를 빨리 배우고, 소리에 대한 저만의 감을 찾아갈 것입니다.

문규 방송의 여러 업무를 두루 잘 아는 방송기술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협업은 방송국의 중요한 키워드인데,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니까요. 저는 거창한 목표를 따로 세우지는 않았어요. 단지 제게 주어지는 업무를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익힌 날들이 하루하루 모인다면 자연스럽게 방송기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문희 새로운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익혀, 미래의 방송 환경을 예측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방송사가 되는데 기여하는 기술인이 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있는 편집 기술팀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